

제9회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

특별상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상)

정상구 (청주시 주성동)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회양의 계절이라 부릅니다. 하얀 목련꽃이 전해주는 봄 노래를 들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따르릉... 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시골에서 형님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머니와 두 분이 함께 돌아가셨답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무렵 받은 아내의 전화는 청천벽력과 같이 내 가슴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전화에 그저 사무실의 청장만 멍하니 바라 볼 뿐이었습니다. 한 세상을 사시며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 한번 다녀오지 못하고 고생만 하시다 이렇게 훌쩍 떠나신 두 분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이따위 어느새 눈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차를 몰아 청주의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허겁지겁 도착한 영안실에는 먼저 도착한 동네 어르신들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장례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이웃사촌들의 위로를 뒤로하고 영안실로 급하게 뛰어 들어가 보았으나 그것은 꿈이 아닌 현실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일요일인 어제까지만 해도 웃는 얼굴로 찾아뵈었던 어머니는 하루 사이에 고인이 되시어 오늘은 영정으로 맞아주시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이 슬픔을 어떻게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단란하던 우리 집안의 시련과 역경은 이렇게 큰머느리 두 분이 함께 떠나시며 눈물로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선장을 잃은 배는 항해를 제대로 할 수 없듯 구심점을 잃은 우리 집안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일면 파도가 이는 대로 이리 저리 흔들려졌습니다.

인 증평지점의 책임자로 임명되는 영전을 하였습니다. 임명장을 받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지난날 중학을 졸업한 둘째 아들이 전기고 안들어오는 산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좋아하셨던 어머니... 서울로 떠나가는 급행버스에 까까머리

날 동생의 신용이 변변치 못함을 소문으로 알고는 이내 반대를 해왔습니다. 이번의 차주는 동생이 아니고 아버님이시며 무엇보다 내 퇴직금으로 책임이 가능하다는 제안에 대출을 결국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우려했던 대로 대출금이 자는 첫달부터 들어오지 않고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집안의 시련을 털어보고자 의도했던 생각은 애당초 소망일 뿐 연체는 점점 장기화되어 급기야는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상태로까지 몰리고 말았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조적인 지원정책과 끈끈한 직원인화를 유도하여 전국 최고의 영업실적을 거머쥐는 명문 지점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고향 은행 지점장 부임 최고 실적 달성 앞두고 동생의 연체문제 불거져 30년 직장생활 접어야”

집안의 대출금 연체문제로 부하 직원들의 사기를 상사인 내가 저하시키는 어려운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은행과 보증인과 집안 사이에서 사면초가에 몰린 나는 동생을 불러 주유소 매장을 유도했으나 매에는 성사되지 않고 시간만 흘러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고향집에서 전해오는 소식은 연일 지진이 난 열도처럼 흔들리는 소식만 들려오더니 끝내는 선조 대대로 내려오던 문전 옥담마저 빛 때문에 팔려나간다는 소식을 접하고야 말았습니다.

문전옥담은 어떠한 땅일까요? 그것은 모든 집안의 정신적인 지주대이자 선조님들의 피와 땀이 흠뻑 배어있는 산의 뒷줄이며 효를 실천하는 도장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집안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온 그것이 쇠뿔의 제물이 되어 팔려 나갈 때 아무런 방패 역할을 하지 못한 자신을 생각해보니 아주 무능하고 초라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이런 저런 고민 속에 밤잠을 설치며 지내던 나는 퇴직금으로 집안을 살려보는 방안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퇴직문제를 그려보니 지난 날 주경야독하며 공부한 탐과 노력이 아까웠고 신선 초부터 시동생들과 시누이 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고생해온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림 - 문병성

동생들의 사업은 점점 부진해져 갔고 하늘 나라가 그 어디라고 2년 뒤에는 젊은 제수씨마저 두분 겹으로 훌쩍 떠나며 불행의 속도는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가속도가 붙어 가는 듯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항상 잔잔한 웃음꽃으로 살아오던 행복은 바람결에 날아가는 연기처럼 자취를 감추어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어 갈 무렵 나는 직장인 은행에서 고향 인근지역

아들을 태워 보낼 때에는 산모퇴비를 돌아가는 버스가 눈에 보이지 않을때까지 손을 흔들며 '건강한 몸으로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빌고 또 빌어 주시던 어머니...

서울의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은행시험에 합격하자 삶은 돼지고기에 막걸리로 동네 어르신들께 후하게 잔치를 하셨다는 자애로우시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함께 하지 못한 영전의 기쁨은 그리 길지를 못했습니다.

부임 한 달이 되어 갈 무렵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동생이 임대료 경영하던 주유소를 사게됐노라" 하시며 대출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탈감지가 없었습니다. 동생의 지난날 신용도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아버님은 동생을 도와 줄 것은 몇 차례 더 말씀하셨고 그 간절한 말씀에 내 마음은 서서히 흔들려졌습니다.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며 고민을 하다 은행의 담당 직원들과 상의해 보았으나 진날

힐러이 수행일기 <중>



백유진 한림대의 가정학과 교수

대학 불교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나에게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첫날 예 불할 때, 머리가 숙여지지 않았었다. 불상은 우상이라는 관념의 때가 묻어 있어서 하심이 되지 않아서였다. 그러나 그러한 관념이 불교학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쉬어져 버렸다. 불상은 우상이 아니라는 반대관념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쉬어 버렸다. 그리고 불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아니, 관점이 없어져 버렸다고 해야 옳을까?

그랬다. 그 전까지는 점심이면 친구들과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사 먹었는데, 그 즈음엔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학생회 방을 향했다. 혼자 예뻐 보이고 법정 스님이 번역한 작은 <수타니파타>를 읽고 잠시 좌정하고는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오후 수업 들어왔다. 얼굴에는 빛이 났고 신체적으로 매우 건강해졌다. 특별한 운동을 한 것도 없었지만, 기운이 넘치고 마음이 고요한 채 유지되었다.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너 요즘 이해 상해 있어. 무슨 생각을 그리 곱씹고

는 느낌이 들었나.

이후 학교를 졸업하고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수행은 몸과 마음에서 떨어져 버렸다. 일과 후 술 마시고 카드 놀이하는 것이 유일한 낙인 그런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현대불교신문은 정기적으로 구독하고 있었다. 당시는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이 선을 보이기 이전이라서 적정한 공중보건의 생활에 매주 현대불교신문을 기다리는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송광사 새벽예불에 감동...정진 계속 "진료는 내 안의 부처님이 하는 거야"

하고 사...?" 이렇게 물었다.

"아무 생각 안 해요."

정말 그랬다.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멍청한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깨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았다. 의과대학은 학습할 양이 엄청나서 공부하는 데 지치지 못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글자가 깨알 같은 의학서적을 오랜 시간 읽고 있자니 눈이 피로하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내일이 시술인데, 실 어려움이 없었다. 그래서 활자를 읽는 그 높이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예정한 분량을 모두 읽었을 뿐만 아니라 전혀 피곤한 기색이 없었다.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졌다. '참 신기하구나...' 그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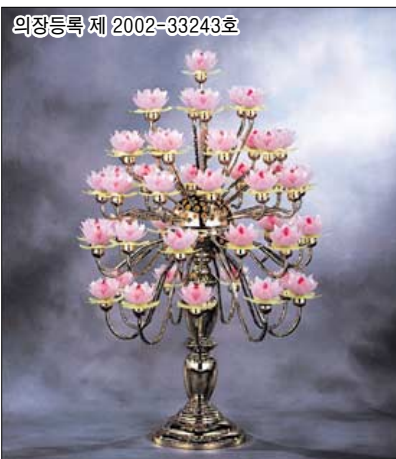
그러나 그 뒤로 잠시 방향의 시기가 찾아왔다. 그러다가 3학년 여름 방학 때 순천 송광사 수련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난생 처음 접해보는 스님들의 웅장하면서도 비장미 넘치는 새벽 예불 소리에 그만 울음이 터져버렸다. 가슴 저 깊은 곳에서 공명하면서 터져 나오는 울음이 그친 후 가슴에 담아 두었던 찌꺼기가 다 빠져 나간 것 같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참으로 슬프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특히 내가 전공한 가정의학과는 가족간의 심리적인 갈등이나 정신적인 응어리에 의해 신체적인 증상으로 발현하는 병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어떤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면 그 배후의 심리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된다.

환자 상담하는 일이 하도 힘이 들어서 하루는 가끔씩 찾아뵈던 스님께 "스님, 요즘은 제가 마치 사람들이 쫓아내는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쓰레기통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알아? 나는 더 그래. 나야말로 쓰레기통이야. 중생들의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쓰레기통. 그래서 중생들이 정화되어 행복한 삶을 영위할 힘을 얻는다면 좋은 일 아니겠어?" 하시며 환자들을 부처님으로 관(觀)하고 진료를 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부처가 진료를 하고 있다고 관(觀)하고 할 불 소리에 그만 울음이 터져버렸다. 가슴 저 깊은 곳에서 공명하면서 터져 나오는 울음이 그친 후 가슴에 담아 두었던 찌꺼기가 다 빠져 나간 것 같

육법등 (六法燈)



- 특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시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 활용 범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개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응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불교성지순례 (주)실크로드여행사 15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곳!! 인도 실크로드와 함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성지순례 10일(불교8대성지) 1,890,000원 인도, 네팔성지순례 15일(불교8대성지와 아잔타석굴) 2,570,000원 인도문화탐방 10일 (인도의 문화유적을 찾아서) 1,990,000원 미얀마 성지순례 6일 1,590,000원 중국불교 4대 명산

Modern advertisement for Buddhist products and services, including a large decorative border and contact information for Dongwon Electric Co., Ltd.